

- 3단 대조군 비교 도식 — 같은 사람·같은 주제·세 단계의 글
 - 1. 한눈에 보는 비교 표
 - 2. 같은 자리의 세 단계 — 본문 직접 비교
 - (가) 도입 — 글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 (나) 핵심 — AI가 준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 (다) 닫음 — 어디로 가는 자리인가
 - 3. 작가 교정의 결정적 9개 변경 (② → ③)
 - 4. 한 줄로 — 무엇이 깊어졌는가

3단 대조군 비교 도식 — 같은 사람·같은 주제·세 단계의 글

변명조 초고 → 개정판 AI 1차 초고 → 작가 교정본

본 첨부는 응모글 본문 ④에서 다룬 **바이블 깊이 = 결과물 깊이** 통찰의 3단 입증 자료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가의 사고 정리 단계에 따라** 글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 폴더에 보존한 세 본문 — 변명조의 1차 초고 / 바이블 개정 후 AI 1차 초고 / 작가 교정본 — 의 비교 도식입니다. 세 본문은 모두 같은 폴더(AIworks에대한고찰에세이)에 **덮어쓰지 않고** 보존되어 있으며, 마지막 단계(작가 교정본)가 곧 자전적 에세이 1막 11장 「바이브코딩과 전신수영복」 (첨부 A에 발체됨)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 표

축	① 변명조 초고 (초고.md, 75행)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본문(교정전).md, 88행)	③ 작가 교정본 (본문.md, 100행)
작업 시점	2026-05-29 (바이블 정리 전, 사고 정리 전)	2026-05-30 밤 (Bible(개정) 7비트 위에서 AI 생성)	2026-05-30 밤 직후 (작가가 ②를 한 줄씩 손본 결과)
가제	「일부 또는 전부」 (공모전 조항 인용)	「전신수영복」 (비유한 단어)	「바이브코딩과 전신수영복」 (두 축 명시)
무게중심	외부 조항에 대한 반박	작가의 발견	작가의 발견 (한 번 더 단단해짐)

축	① 변명조 초고 (초고.md, 75행)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본문(교정전).md, 88행)	③ 작가 교정본 (본문.md, 100행)
도입 출발점	공모전 유의사항 한 줄 노출 → "내 글은 'AI가 만든' 것인가?" 자기 변호 질문	"AI가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 — 작가의 자기 질문에서 시작 (외부 자극 노출 없이)	공모전 규칙 한 줄 + 분노의 감정 정직한 인정 + 자기 검증 — 외부 자극을 먼저 노출하되 후반 톤 전환이 잡아줌
AI가 준 것 의 명 명	명시되지 않음 — 일 반론("도구를 들고 있었지, 도구가 나를 들고 있지 않았다")	'필력' — 머릿속 아이디어를 준수한 구성과 표현으로 구현하는 능력	'필력' + AI 메타-튜닝 메타루프 — AI에게 자기 수정 의도를 추론시키고 집필 스타일 피드백 문서를 만들게 한 작업 메커니즘 (★ 차별성의 핵심)
핵심 비유	망원경 / 사진기 (도구의 중립성·사용자의 책임)	기술도핑 / 전신수영복 (대회 자리의 공정함)	동일 + 인핸스드 게임즈 박스의 두 결과 공존 정직한 공개
공모전 금지 조항에 대한 자세	"칼이라도 지금은 필요할지 모른다" (이해는 함)	"나는 그 칼 바깥에 있을 뿐이다" (수동·체념)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능동·기여)
다음의 위치	자기 변명 + 응모 포기 선언	한 영역의 초기 보고	한 시대의 초기 보고서 (보고→보고서, 한 단계 더 무거워짐)
마지막 줄 시 제	"이번에도 혼자 걸지는 않았다" (과거형·단정)	"이번에도 혼자 걸지는 않았다" (동일)	"이번에는 혼자 걸지 않을 것 같다" (미래형·추정 — 미래 지향 강화)

2. 같은 자리의 세 단계 — 본문 직접 비교

세 글의 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세 단락을 나란히 놓는다.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로 쓴 세 단계의 글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직접 보여주는 자리다.

(가) 도입 — 글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① 변명조 초고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다.

어느 공모전의 유의사항이었다. 응모할 수 없는 작품들을 나열한 목록의 끝자락에, 다른 항목들과 똑같은 무게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만든 작품.

다른 항목들은 분명했다. 남의 글을 베낀 것, 이미 팔린 것, 권리가 묶인 것. 그런데 이 한 줄 앞에서 나는 멈췄다. *일부 또는 전부.* 그 사이에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일이 통째로 들어 있었다.

내 글은 'AI가 만든' 것인가.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

AI가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 정말로 새로운 무엇 하나라도 주었을까. 처음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나는, 솔직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 글이 다른 AI 생성물들과 한 묶음으로 도매금에 취급당하는 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니, 그 답은 아니었다.

AI는 내게, 한 가지를 주었다.

③ 작가 교정본

원래 지원해보려 했던 공모전의 규칙 한 줄. 일부 혹은 전부를 AI로 생성한 글은 금지한다. 이것을 보고 난 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의 그 동안의 작업이 이 한 줄로 문도 두드려볼 수 없는 것 취급당할 만큼 무가치한 것인가?

나는 AI에게 내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라 명령한 적이 없었다. 모든 작업물은 내 아이디어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 플롯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 한 줄은 나의 작업이 창작활동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듯 했다.

AI가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 이것은 정말로 내 창작이 아니라 AI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준 것일까? 처음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 글이 다른 저질의 AI 생성물들과 도매금으로 묶여 취급당하는 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하고, 정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니.

AI는 내게, 한 가지를 주었다.

관찰: ①은 외부 조항에서 출발하여 내 글이 그것인가라는 자기 변호 질문으로 흐른다. ②는 외부 조항을 완전히 빼고 작가의 자기 질문에서 출발한다(무게중심 전환). ③은 외부 조항을 다시 노출하되 ①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분노를 정직하게 인정하고("문도 두드려볼 수 없는 것 취급당할 만큼 무가치한것인가?") 자기 검증("아이디어와 머릿속 플롯은 내 것이었다")을 거친 뒤 작가의 자기 질문("AI가 내게 무엇을 주었을까?")으로 이어진다. 변명이 아니라 정직한 검토의 출발이다.

(나) 핵심 — AI가 준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① 변명조 초고 (명명 없음 — 일반론으로 처리)

도구와 대리인은 다르다.

대리인은 나를 대신해서 한다. 내가 없어도 그 일은 일어나고, 결과물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것이다. 도구는 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나를 늘린다.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과물은 늘어난 나의 것이다.

망원경은 보이지 않던 별을 보게 했지만, 그것을 들여다본 것은 사람의 눈이었다.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계가 그린 그림'이라 불렀다. [...]

내가 한 일이 그랬다. 나는 도구를 들고 있었지, 도구가 나를 들고 있지 않았다.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필력 명명)

내가 한 일은 이렇다 — 스무 해에 걸쳐 끄적여둔 파편과 추가로 구술한 기억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입력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비추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블* 위에서 도구가 초안 문장을 뽑아냈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한 줄씩 고쳤다. 어색한 표현을 들어내고, 틀린 사실을 바로잡고, 때로는 통째로 다시 쓰라 지시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됐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상하게도 *작문법* 수업에 가까웠다. [...]

그렇게 정리해보니 답이 나왔다. AI가 내게 준 것은 — 통상 *필력*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머릿속에 든 아이디어를 *준수한 구성과 표현으로 구현하는 능력*.

③ 작가 교정본 (필력 + AI 메타-튜닝 메타루프)

내가 한 일은 이렇다 — 스무 해에 걸쳐 끄적여둔 글의 파편들과 추가로 구상한 설정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입력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기준점이 될 설정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

다.

그렇게 만들어진 절대적 집필기준과 설정집, 소위 '바이블'을 AI에게 읽게 한 뒤 사건의 전개와 플롯을 설명하면 AI가 초안 문장을 뽑아내었다. 첫 결과물은 끔찍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거기에 성형수술을 하듯 어색한 표현을 들어내고, 틀린 사실을 바로잡고, 때로는 통째로 다시 썼다.

그리고 고친 글을 AI에게 다시 읽게 했다. 방금 자기가 쓴 글을 기억하고 있는 AI에게 내가 고친 글과 너의 원본의 차이점을 설명해보라 지시했다. AI는 고친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어디가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으며 내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바꾸었는지를 추론했다. 추론이 안되는 부분은 내게 역으로 묻기도 했다. 그리고 고친 여러 부분에서 어떠한 일정한 경향성이 보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해 설명해주고 '집필 스타일 피드백'이라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문서가 자세해질수록, 완성된 집필본이 쌓여갈수록, AI가 생성한 초안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것이 눈으로 보였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AI를 나의 스타일로 튜닝하는것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작문법 수업**에 가까웠다.

관찰: ①은 AI가 준 것을 명명하지 못한다(도구가 나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자기변호로 그침). ②는 **필력**을 명명하고 **작문법 수업**이라는 비유까지 나아간다. ③은 ②의 **작문법 수업** 비유는 그대로 두되, 그 **앞에 결정적 한 단락 — AI 메타-튜닝 메타루프를 추가**한다(굵게 표시된 단락). 다른 응모자가 흉내내기 어려운 **실제 작동 메커니즘 보고**가 이 자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응모글 본문 ②의 4단계 중 **결정적** 4단계도 이 자리에서 직접 본문화되어 있다.

(다) 다음 — 어디로 가는 자리인가

① 변명조 초고

이 비유에 닿자, 한 매듭이 풀렸다. [...] 나는 그 칼 바깥에 있을 뿐이다.

[...]

안개는 여전히 다 걷히지 않았다. 다만 나는, 이번에도 혼자 걷지는 않았다.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이 비유에 닿자, 한 매듭이 풀렸다. [...] 나는 그 칼 바깥에 있을 뿐이다.

[...]

이 자리는 변명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변명 대신, 한 영역의 **초기 보고**가 필요한 자리다.

이 글은 그래서 쓰여진다. 변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안개는 여전히 다 걷히지 않았다. 다만 나는, **이번에도 혼자 걷지는 않았다.**

③ 작가 교정본

이 비유에 닿자, 내 마음의 매듭이 풀렸다. [...] 거친 기준이라도 지금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나는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창작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

이 자리는 자기변명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변명 대신, 한 ****'새로운 시대의 초기 보고서'**가 필요한 자리다.

이 글은 그래서 쓰여진다. 변명이 아니라 기록을 위해.

안개는 여전히 다 걷히지 않았다. 다만 나는, **이번에는 혼자 걷지 않을 것 같다.**

관찰: ①의 답음은 수동/체념("나는 그 칼 바깥에 있을 뿐") + 과거형 단정("혼자 걷지는 않았다"). ②는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핵심 톤을 명명하지만 **그 칼 바깥**의 수동성은 그대로 남는다. ③에서 작가는 두 자리를 동시에 손본다 —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능동/기여로 자세 전환) + **초기 보고** → **초기 보고서**(한 단계 무거워진 자기 인식) + 마지막 줄 시제 변경(**혼자 걷지 않을 것 같다** — 미래 지향). 같은 단락의 같은 줄들이 **세 단계의 사고 진화**를 그대로 드러낸다.

3. 작가 교정의 결정적 9개 변경 (② → ③)

Sessions/2026-05-30(밤).md에 작가가 직접 정리한 작가 교정의 9개 주요 변경. 이 9개가 ② AI 1차 초고를 ③ 작가 교정본으로 **깊어지게** 만든 자리다.

#	변경 자리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③ 작가 교정본	의미
1	제목	「전신수영복」	「 바이브코딩과 전신수영복」	두 축(도구·비유) 명시

#	변경 자리	② 개정판 AI 1차 초고	③ 작가 교정본	의미
2	도입	작가의 자기 질문에서 시작	공모전 조항 노출 + 분노 + 자기 검증으로 시작	정직한 출발점
3	2번 섹션	무기력의 기제만	이야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 명시 + 이과·창작 거리 먼 전공·졸업 후 무기력 배경 추가	1막 자전 결과 일관성·구체성
4	★ 도구 도착 + 필력	작문법 수업 비유까지	AI를 자기 스타일로 튜닝한 메타-루프 한 단락 신설	차별성의 핵심
5	단·전제	비어 있는 머리를 채워주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뭉뚱그림 인용	1막 4장 신앙 해체와의 호응
6	★ 기술 도핑 단음	"나는 그 칼 바깥에 있을 뿐" (수동/체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능동/기여)	자세의 전환
7	30억 대회 단락	수치(200만·30억) 노출 + 인핸스드 게임즈 비유 재인용	수치 삭제 + 박스 중복 삭제 + 현실의 한 줄짜리 자리 → 현실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미래 지향 강화
8	단음 직전	"도구를 빌려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든 사람"	"도구의 힘이 없었다면 끝내 꺼내지 못했을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 든 사람" + 초기 보고 → 초기 보고서	더 정직하고 무거운 자기 인식
9	마지막 줄 시제	"이번에도 혼자 걷지는 않았다" (과거/단정)	"이번에는 혼자 걷지 않을 것 같다" (미래/추정)	미래 지향 강화

4. 한 줄로 — 무엇이 깊어졌는가

세 글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① 변명조 초고는 외부의 비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묻는 글이다. ② 개정판 AI 1차 초고는 AI가 내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묻는 글이다. ③ 작가 교정본은 같은 질문을 묻되 거기에 답한 결과로 새 시대의 자리에 무엇을 보낼 것인가까지 묻는 글이다. 외부 자극 → 자기 검토 → 시대에 대한 기여.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로 쓴 세 단계의 글이, *바이블* 깊이가 *결과물* 깊이를 결정한다는 작가의 통찰을 풀더 구조 자체로 증명한다.